

강원 발전·경제 활성화 책임자 자처

업 건봉사 복원 노력·국회의정연수원 건립 ... 최 농수산물가공단지 조성·천연가스 조기도입

[공통질문]②

※강원도지사로서의 자질과 정치적 역량을 살펴보고, 고성군 발전을 위해 누가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

1.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기영= 작년 2월 언론인의 길을 마무리하고 자연인이 된 후 지금까지 내고향 강원도 전역을 틈틈히 돌았다. 도내 구석 구석 돌아보며 수많은 어르신, 학생, 주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강원도 정말 위기 상황임을 느꼈다. 침체된 지역경제, 낮은 성장률, 열악한 재정환경이 강원도 발전을 저해하고, 인구감소의 위기가 강원도를 짓누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초래한 사상초유의 두 번의 도정공백이 강원도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저의 도지사 출마결정은 위기의 강원도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작됐다.

●최문순= 저는 강원도민과 민주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 '이광재를 찾아와라',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되찾아라', '강원도민의 선거 주권을 회복해라', '강원도를 잘 살게 하라'는 명령이다. 이번 강원도지사 재보궐 선거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내겠다. 다시는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강원도민의 소중한 선거주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하겠다.

2. 후보자 본인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엄기영= 저는 36년전 MBC의 말단 평기자로 입사해, 파리특파원과 대한민국 최장수 앵커를 거쳐 MBC 사장에 까지 올랐다. 기자와 경영자의 시각으로 문제점과 대안 발굴, 그리고 기업 경영의 경험과 마인드를 갖췄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대표적인 인사들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경제, 사회, 문화, 학계, 예술, 복지 등 대한민국 각 분야 최고 인맥을 구축했고, 세계적인 인맥까지 갖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강원도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해 강원 경제 살리기를 힘차게 추진할 수 있다.

●최문순= MBC 평기자를 거쳐 48세의 나이에 최연소 방송사 사장이 됐다. 사

장 재임 2년 만에 매출 1조 5천억원으로, 역대 최다 매출액을 기록했다. <주몽> <이산> <근세어라 굼순아> <내 이름은 김삼순> <무한도전> 등 수많은 히트작을 제작해 시청률 1위 방송사를 만들어냈다. 경영과 행정, 입법까지 모든 경험이 있는 유일한 강원도지사 후보라고 자부한다.

3. 본인이 도지사로 당선 될 경우 도정 발전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엄기영= 최각규 전 총리님께서 행정은 도정에 있는 행정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도지사는 밖으로 해외로 뛰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다. 행정 공무원들이 미처 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은 중앙 무대에서 크게 쌓은 인맥과 힘을 도정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민선 도지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저는 직원만 해도 4천명이 넘고 예산도 강원도 예산의 절반 수준의 1조5천억 규모의 방송사를 운영한 경험도 있어서 앞으로 도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한다.

●최문순= 우리 강원도민들이 정치적 자발성, 주체성,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활기 있고 자신감 있는 강원도로 되살아 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4.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간 기본설계와,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고성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엄기영= 고성에서 국가 기간 교통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저도 도지사에 당선 되면 고성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전념하고자 한다. 우선 동해고속도로의 경우, 고성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비를 확충해서 반드시 연장하도록 하겠다. 동서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속초가 종착역이 되어 있지만, 강릉-저진간 철도를 연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고성까지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남북이 통일되어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중국으로 우리의 KTX

가 운행하게 되면 고성은 당연히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최문순= 동해안 접경지역인 고성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해양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가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해 발전 가능성이 많은 장점이 있다. 더구나 향후 부산에서 강릉을 거쳐 고성과 원산으로 이어진 한반도 종단철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유럽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추진될 경우 한반도 동해안의 중심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

중앙정부는 동해고속도로와 춘천-속초간 철도의 고성까지 연결에 대해 아직까지 통행량 부족 등을 이유로 조속한 사업추진 의지는 부족하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SOC 사업 확대 추진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우선, 금강산 관광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하며 향후 남북의 교류 확대 대륙으로 진출하는 강원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동해고속도로와 동서 고속화철도의 고성 연장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

5.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으로 고성지역 주민들이 경기침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엄기영= 금강산 관광문제는 남북당국 간의 문제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된다면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중단으로 인해 고성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성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화진포 개발, 강릉-저진 철도연장, 건봉사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

●최문순= 남북문제를 풀 열쇠는 중앙정부의 일이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소 500마리와 함께 북으로 가면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몰았던 것처럼 도 지사가 된다면 제2 개성공단, 남북공동어로, 해운항로 활성화 등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안을 할 것이다. 그런 신의를 바

탕으로 육로관광도 재개토록 하겠다.

6. 지난 1990년 관광지로 지정된 화진포관광지가 지난해 리솜리조트와 고성군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엄기영= 고성 화진포 국제관광휴양지 개발 건은 고성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도의 가용예산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약 120-130억원 정도의 도비를 지원하게 되면 사업의 진행과 마무리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최문순= 고성 화진포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손 꼽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이다. 이광재 전 지사의 재임시 리솜리조트의 사업추진이 논의되었고 도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자연경관을 가진 화진포지역에 국내 최고의 리솜리조트를 건설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인 만큼 리솜과의 원활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성군, 강원도 차원에서 최대한의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7. 위에서 거론하지 않은 고성군 발전을 위한 공약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엄기영= △고성을 대표하고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건봉사의 복원을 위해 노력 △몇 해 전 불발되었던 국회의정연수원 건립 사업을 가져오겠다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강릉-저진간 철도를 연장함으로써 서울에서 고성까지 관광객들이 기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문순= △북한산 및 러시아산 농수산물 가공단지 조성 : "남북교류협력산업벨트" 내 명태가공업 단지 조성 △설악산 국립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건설 :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설악 집단지구재정비 사업 적극 지원 △고성 내 천연가스 조기 도입 추진.

무소속 황학수 후보 TV 토론참여 요구

4.27 도지사 보궐선거 엄기영·최문순·황학수 3명 후보등록

4.27 도지사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민주당 최문순 후보, 무소속 황학수 후보 등 3명이 최종 등록을 마쳤다.

황학수 후보는 지난 13일 TV 토론에 자신을 배제한 것과 관련

“이제 황학수 후보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았던 배연길 후보가 사퇴하였으므로 배연길 후보에게 주려고 배정했던 시간을 나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나를 포함한 3명이 TV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거대 정당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엄기영, 최문순 후보는 방송 토론에서도 보호받고 무소속인 저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나”며 “정정당당하게 대결해 볼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황학수 후보가 아침 인사를 하고 있다.